

# 국내 생수 No.1 제주삼다수의 뿌리는 보건안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삼다수) | 홍주연 보건관리자

글 강성준 대한산업보건협회 제주센터 사내기자 사진 정익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해 28년 동안 국내 생수 No.1 브랜드인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먹는샘물사업을 비롯해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제주 감귤산업 보호를 위한 감귤가공사업 등 제주의 특색을 살리며 꾸준히 도약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1998년 출시된 이래 단 한 번도 생수 시장점유율 1위를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업계 선두를 굳건히 지키며 새 역사를 기록하는 중이다. 보건안전 분야도 마찬가지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 중심에서 건강한 일터를 목표로 현장을 활발히 활동하는 홍주연 보건관리자를 만났다.



## 삼다수 품질만큼 건강한 일터환경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JPDC)의 새로운 역사는 안전보건분야에서도 기록 중이다.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을 중요한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며,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포함한다. 주요 활동으로 ISO45001(국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22301(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 SSC(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인증을 획득하였고, 이러한 회사의 관심과 지원 속에 홍주연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위험성평가 및 개선활동, 안전교육 및 훈련, 협력사 안전관리 등 안전일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

그가 보건관리에 큰 관심을 가진 건 JPDC 입사 전 자살예방센터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서였다. 그는 자살예방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고충과 어려움을

주심다수

이달의 한마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필요 없는  
상황별 맞춤 소통이 우선입니다.





“**사업장마다 노동자의 일하는 환경과 건강상태가 모두 다르기에 상황에 맞춘 유기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곳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노동자 구성과 노동자 교대근무 특성상 상황·장소·시간이 상이해 소통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특성에 맞게 조정해 건강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마주하며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지 못할 때 심리적·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소와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닫고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느꼈다.

“사업장마다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적극적인 대책이 있다면 그들의 건강은 더 좋은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구성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어요. 현장과 가깝게 소통하는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 중입니다.”

### 상황별 맞춤형 보건관리로 더욱 안전한 일터를

홍주연 보건관리자의 하루는 안전점검부터 시작한다. 삼다수 생산라인과 사무실의 안전관리 계획 및 보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데, 특히 삼다수 생산라인은 교대근무이기에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신경 쓰고 있다.

“오전에는 생산라인을 방문해 스탠딩 미팅으로 위험요소 확인과 화학물질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데요. 기계설비나 공정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 안전수칙이 잘 준수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 발견 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작업자와 협의해 즉각 조치하고요.”

늘 씬 없이 오고 가는 현장 속, 홍주연 보건관리자는 노동자의 니즈를 수용하기에 바쁘다. 건강과 안전까지 챙겨야 하는 보건관리의 의무를 빼놓지 않고 점검하기 때문이다. 먼저 현장에서 간단한 안부와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나 건강 이상 등을 관찰한다. 유해요인은 현장 곳곳 작은 세부적인 상황에서부터 발생하기에 예방을 위한 소통은 무엇보다 막중하다.

“사업장마다 노동자의 일하는 환경과 건강상태가 모두 다르기에 상황에 맞춘 유기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곳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노동자 구성과 노동자 교대근무 특성상 상황·장소·시간이 상이해 소통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특성에 맞게 조정해 건강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합니다. 지금은 많은 노동자분께서 먼저 보건관리자를 찾으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스스로 건강을 이해하기 위한 노동자의 자가진단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 보건안전이 최우선인 일터가 되도록

홍주연 보건관리자는 보건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시도 중이다. 삼다수 생산공정의 검병공정 노동자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안과질환 예방프로그램, 이 외 UV차단렌즈, 안구건조증 예방 보호구 등 개인 맞춤형보호구를 지급해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을 계획해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해물질을 다른 대체가능물질로 개선한 일도 있었다. 소수 구성원에게 특정유해물질로 인한 두통, 피부염증, 메스꺼움 등의 문제가 있던 것이다. 홍주연 보건관리자는 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특정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 시 건강장해 위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시키고, 대체가능물질로 변경하도록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증빙자료를 수집, 위험성을 강조하는 문서를 작성해 안전보건총괄부서에 제출했으며, 그 결과 공정 내 문제를 일으킨 특정유해물질을 대체가능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성공했다.

“이 일은 노동자의 보건안전이 중점이 되어 변화된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를 계기로 사내에 유해물질을 검토하고 변경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고 생각해 이루어내는 작은 변화는 결국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 노동자 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홍주연 보건관리자의 궁극적인 목표도 다르지 않다.

“JPDC는 제주 도내 큰 기업이자 최고의 모범사업장이지만 안주하지 않고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증액하며 도내뿐 아니라 전국에서 인정받는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중이에요. 이에 발맞춰 저 또한 지금의 마음을 유지하되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하려고요. 앞으로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개선하는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